

기독교 가정의 이해와 자녀의 양육

- 십대 자녀 양육 중심으로 -

이 은 규 교수

(D.R.E., 안양대학교)

국문초록

이 글은 부모가 십대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크리스천 부모가 십대 자녀를 위한 양육에 조그마한 도움을 주려는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을 본 논문은 시도할 것이다.

이 글은 첫째로 성경적 가정과 가정의 기능을 고찰하여 십대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가정이고 이 가정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 출산과 양육임을 밝힐 것이다. 둘째로 가정과 기독교 양육의 고찰을 통하여 양육의 성경적 개념과 가정양육을 위한 성격적 지침을 제시할 것이다. 끝으로 Paul Tripp의 ‘십대양육을 위한 세 가지 전략’을 십대 양육을 위한 상담적 접근으로 제시할 것이다.

중심단어 : 기독교 가정, 가정의 기능, 성경적 양육, 지속적인 대화, 회개.

I. 여는 글

가정이란 하나님이 주신 신비의 공동체이다. 하나님의 작품이 불완전 할리야 없지만, 특별히 건강한 가정은 신의 온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인간의 활동과 축복의 중심지이다. 오늘날처럼 가정에 대한 인류의 관심이 집중된 시대도 없을 것이다. 건강한 가정은 온 인류, 특별히 크리스천들의 관심사이다. 건강한 가정을 통하여 건강한 인간이 양육되어진다. 가정에서 육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양육 받지 못하면 비정상인이 된다.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이웃의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여 이웃은 물론 자신을 파멸로 인도한다. 그러나 반대로 건강하게 양육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함께 공유하는 빛을 발한다. 나아가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공급하게 된다. 건강한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가정의 위치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신이 자녀에게 제공하는 양육의 종류 또는 이의 결핍성 여부에 따라서 자녀의 삶을 보다 풍성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를 망쳐 놓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¹⁾

본 논문은 성경적 가정과 가정의 기능을 고찰하여 청소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가정이고 이 가정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출산과 양육임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가정과 기독교 양육의 고찰을 통하여 양육의 성경적 개념을 제시하고 일반적 부모의 양육 태도와 가정양육을 위한 성경적 지침을 통하여 차이점을 밝힐 것이다. 끝으로 이 글은 자녀 양육에 상담적 접근을 시도하여 십대 자녀를 위한 양육에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II. 펴는 글

1. 성경적 가정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성경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이브는 아담의 배필이었고, 아담과 이브 두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다. 그들은 에덴동산을 다스렸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피조물을 정복할 수 있는 자유를 누렸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성적인 결합을 정당화시키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가르치셨다.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창조는 피조물 중의 핵심이며, 나머지 피조물들은 그들의 보호와 보살핌 아래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인간의 숭고한 목적은 그가 죄를 범했을 때 더럽혀지고 밀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다.

죄의 출현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완벽한 관계를 끊어 놓았으며, 배우자 상호간의 불신과 긴장을 초래했다. 성적인 결합은 여전히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중의 일부였으나, 아이를 출산하려면 고통이 수반되어야 했다. 결혼은 여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신성화되었으나, 범죄 후로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숙했을 때야 비로소 해결할 수 있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어떤 부조화와 긴장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가정에 대한 지침은 구약에도 나와 있지만, 신약시대에 이르러서야 가정의 완전한 잠재력을 재발견하게 되었다. Gene Getz는 그의 저서 *The Measure of Family*²⁾에서 신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거의 대부분이 “교회”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언급한다.

즉, 교회에 대해 쓰였던 것은 대한 각 가정에 대해 쓰인 것이다. 그가

제시한 것은 왜 신약에서 가정에 대한 언급이 상대적으로 적은지 말해 준다. 그에 의하면 가정은 교회의 모형이다. 죄인 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천 가정에서는 이 세상의 일반 가정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찾아볼 수 있다.³⁾

1) 사랑

크리스천 가정에 깔려 있는 사랑은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지거나 변질 혹은 퇴색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가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진실의 여부가 밝혀지는 것이다. (요일 4:20).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롬 5:5). 이러한 사랑은 한 가족으로 하여금 화목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자녀들에게는 정서적인 안정을 제공해주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가족들을 보호해 주는 방패 역할을 하게 된다.

2)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주셨으며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고 죄악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접어들기도 한다. 크리스천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써 날마다 주안에서 성숙해 가는 서로를 바라보는 가운데 하늘나라의 기쁨과 결실을 맛 볼 수 있어야 한다.

3) 하나님을 경외함

크리스천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악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잘 조화시켜서 가르쳐주어야 한다. 진정으로

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면 그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목격한 이사가 자신의 비천함을 깨달았듯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사 6장).

4) 개인적인 거룩함

“거룩하고 흠이 없게”(엡 5:27) 되는 과정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매일 조금씩이라도 경건한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크리스천 부모들은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써 그들에게 삶이 모범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딤후 2:12).

5) 경건의 훈련을 받는 가족들

크리스천 부모와 자녀들은 모두가 형식적인 의무감에서이기보다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상호간의 깊은 사랑에 의해 결속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한 훈련은 가족 구성원들이 “크리스천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서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자랄 수 있게 도와준다(엡 4:13~14).

6) 기쁨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평강을 체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쁨도 맛볼 수 있다(시 16:11).

7) 환대

구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그이 백성들을 향하여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고 그들의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라고 가르치셨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레 19:34).

하나님의 넘치도록 풍성하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도 나눌 수 있도록 자기 가정만의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가정을 성경은 분명히 훈련학교임을 지적하고 있고 일반적으로도 “청소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⁴⁾고 보고 있다.

2. 가정의 기능

가정의 기능이란 가정이 사회의 기초 집단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으로 이는 문화나 시대의 변천 또는 사회의 특수성 등에 의해서 다양한 의미로 접근할 수 있으나 일반적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⁵⁾

가정은 생산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 즉,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고 옷을 손질하는 등의 일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호적 기능을 가지며 위험이나 병에 대해 충분한 대비를 하고 가족 성원으로 하여금 영양 섭취나 휴식을 취하게도 한다.

종교적 기능을 가지고 제사 등 각종 의식을 행사하며, 나아가서 조상 숭배를 위한 동족 집단의 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오락적인 기능이 있어 가족들이 모여 단란한 대화나 놀이로 위안을 받게 한다.

교육적 기능이 있어 고유한 가풍 및 전통 문화를 전승하기도 하며 사회생활의 습관을 터득하게 된다.

가정은 출산과 양육을 통하여 사회 성원을 재생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를 김국환 교수는 제 1차적 기능과 제 2차적 기능으로 구분하고 제 1차적 기능은 성적인 통제, 생식, 육아 및 가족 구성원들의 사회화와, 제 2차적 기능은 경제적 생산, 교육, 보호, 휴식·오락 및 신앙적 기능들이라고 나눈다.⁶⁾

더욱이 구체적 기능으로 구분하면서, 부부 중심의 기능은 애정, 자녀출산, 휴식, 안정, 경제적 수입 및 공동 목표의 성취 등을 들고, 부모와 자녀 중심의 기능을 양육, 교육, 보호, 문화 매개, 인간관계 증진, 신앙의 계승 등을 들고, 장년기의 자녀와 노년기의 부모중심의 기능은 노후 생활 보조, 효도, 건강관리 및 기타 생활의 조력 등을 들고 있다.⁷⁾ 그러나 위와 같이 다양한 가정의 기능 중에 자녀의 양육과 교육적 기능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정의 기능으로 지적되어 있다.⁸⁾ Oscar. E Feucht도 “일반적으로 결혼은 자녀의 출생과 양육 문제와 연결된다. 이 사명은 결코 가볍게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⁹⁾고 양육을 강조한다.

3. 가정과 기독교 양육

1) 양육의 성경적 개념

① 구약의 양육적 개념

구약 성경에 따르면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배움으로 안정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배움으로 권위 개념을 깨달으며, 불의와 정의를 배움으로 올바를 도덕의식을 깨달으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을 배움으로 인간이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을 깨닫게 된다.¹⁰⁾

유대인의 생활상을 보면 포로 이후까지는 학교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없다. 초기시대의 학습장소는 가정이었다. 교육은 부모의 손에 있었으며 가정 교육은 계속적으로 가정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탈무드에서는 자녀에게 율법을 주입시키고, 장사하는 법을 가르치며, 결혼을 시키는 일은 아버지의 책임으로 언급하고 있다.

② 신약의 양육적 개념

신약성경에서는 양육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로 헬리어 Paideia를 사용하고 있다. 이 단어는 교육과 훈련의 혼성어이다. Arndt와 Gingrich는 이 단어를 ‘주로 훈계와 교정을 통해서 달성하는 양육, 훈련, 교육’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양육과 관련된 사도들의 명령은 물론 어머니를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주로 아버지를 향한 것이었다(엡 6:1~4). 양육은 결코 가정에서만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가정은 특히 감독과 집사의 자격요건으로도 언급되었다. 교육, 학습, 교정 그리고 지도는 기독교 사회의 모든 인간적 상호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골 3:12~25, 엡 5:21, 6:4).

위에 언급에서 나타난 것 같이, 양육이란 ‘학교교육’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고 진정한 양육(교육)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양육은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¹⁾

2) 일반적 부모의 양육 태도

일반적 부모의 여러 양육태도 중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다섯 가지의 양육이론을 소개하고, 그것이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²⁾

① 과보호적 태도

과보호적 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지나치게 보호하거나 간섭하는 태도다. 자녀의 요구라면 무조건 다 들어주고, 인제나 밥을 먹여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일도 대신해 주는 것 등의 태도이다. 흔히 자녀에 대하여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불안해하는 부모가 과보호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정서적으로 성숙되지 못하여 불안·초조해하는 경향이 있다. 또 인제나 부모가 관여해 왔기 때문에 자주성이 없어 자기 일을 남에게 의존하려 하고 어떤 한 가지 일을 계속해서 추진하지 못한다.

특히 가정에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회생활에서도 자기중심적으로 생활하고, 규칙을 잘 지키지 않은 사람이 되기 쉽다.

② 거부적 태도

거부적 태도란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데 있어 애정이 없거나 자녀의 움직임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말한다. 이러한 부모는 흔히 자녀에게 따뜻한 말을 하지 않으며, 자녀가 질문을 해도 귀찮아하고, 아이가 울어도 그대로 내버려 둔다. 이 같은 태도는 자녀에게 많은 문제점을 가져다준다. 그 자녀는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한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애정을 받지 못하고 거부당한 불만을 유치한 행동이나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현한다. 이를테면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오줌을 누다거나 손가락 빨기, 손톱 뜯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좀 큰 아이들은 반항적 행동, 위협, 거짓말하기 등의 증상을 보인다.

③ 지배적 태도

지배적 태도란 엄격하게 자녀를 통제하고 명령·지시·감독하는 것이 많으며, 또한 높은 수준이나 엄한 표준에 맞추어 행동하게 하는 것이다. 대개

자기가 이루지 못한 욕망을 자녀를 통해서 달성하게 하려는 부모나, 기문과 자신의 체면이나 위신을 중시하는 부모가 지배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순종을 잘하고 겸손하며 조심성 있게 행동한다. 그러나 어떤 일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며 의욕을 상실하고 금지 당하는 감정을 느끼기 쉽다. 따라서 생활을 자주적으로 해나갈 능력이 없어지며 수동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주위사람들에 의해 쉽게 지배당한다.

④ 모순적 태도

처음과 나중에 일치되지 않는 양육 태도를 말한다. 부모가 기분 내키는 대로 일관성 없게 자녀를 대하는 태도이다. 이를테면 자녀가 행한 똑같은 행동에 대해서도 부모가 기분이 좋을 때에는 칭찬을 했다가 기분이 나쁠 때에는 꾸짖는 태도다. 또한 자녀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아버지는 야단치는데 어머니는 그 반대의 태도를 취하는 것과 같이 양친 간에 서로 일치되지 않은 양육태도다. 이 같은 모순적인 태도 속에서 자란 자녀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기준을 부모에게서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 경계심이나 공포심이 많으며 침착성이 부족하게 된다. 또 정서적 동요가 심하고 기분파가 되기 쉬우며, 경우에 따라서 부모의 일치하지 않는 태도에 발발하며 반사회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

⑤ 수용적 태도

수용적 태도는 가정에서 자녀와 언제나 따뜻한 관계를 맺고 있는 태도를 말한다. 자녀에게 애정으로서 대하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요구에 민간함고 그의 잘못을 수용할 줄 아는 태도이다. 수용적인 태도를 지닌 부모는 어린이를 사랑하나 결코 그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어린이는 많은 장점을 가지게 된다. 사랑과 이해를 받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정서적, 심리적으로 안정되어있고 언제나 즐겁고 성실하게 생활한다. 또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자라기 때문에 자기의 의사를 솔직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도 쉽게 어울리고 협동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일반적 부모의 양육 태도도 크리스천 부모들은 알아야 하겠지만, 크리스천 부모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적인 양육이다. 이 기독교 양육은 하나님에게 속한 양육이다. 이 양육은 하나님이 세우신 양육이므로 필연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방법과 성격을 가진다.¹³⁾ 때문에 기독교적 양육은 비기독교적 양육과는 구별되기 때문에 크리스천 부모는 성경적 지침을 따라야 한다.

3) 양육을 위한 성경적 지침

신약과 구약 모두는 정상적인 상황 하에서는 가정이 자녀들로 복을 받게 할 것임을 증명하는 것 같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창조의 구절, 레위기에서의 개인의 성적 행위에 대한 법,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교회의 그림자로서의 결혼에 대한 규약 등과 같은, 가정에 대한 특별한 교훈은 자녀양육의 문제로 집중된다. 부모에게 부여된 양육의 지침은 무엇인가? Eleanor Daniel은 이러한 지침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이다.¹⁴⁾

① 말씀으로 가르치라

부모는 그들의 자녀를 가르치도록 되어있다. 하나님은 부모가 믿음 안에서 그들의 자녀를 훈계하라고 명령하셨다(참고: 시 78:1~8). 바울은 이 원리를 다시 언급하고 있다. “또 아버지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엡 6:4).

② 본을 보임으로 가르치라

하나님께서서는 자녀들이 예배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볼 것을 아셨다. 신명기 6장 4~9절은 본을 보임으로 믿음으로 가르치야 하는 부모의 책임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부모는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그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친다. 정상적 상황 하에서, 자녀들은 대부분 부모의 본보기를 따라감으로 인해 점점 그들의 부모와 같이 된다.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의 행동양식을 비판적으로 주시하며 그들의 인행이 일치하는 가를 판단하게 된다. 그들은 기쁨과 재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관찰하게 되고, 그런 후에는 보통 그들의 부모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반응하게 된다. 본보기로 가르치는 것은 그것이 형식적인 것인 만큼 또한 비형식적이기도 하다. 가족간의 사랑, 명절 때의 전통, 식사기도, 취침기도, 그리고 가족간의 대화 등은— 만약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면— 그 속에서 믿음이 나누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게 된다. 본을 보임으로 가르치라는 뜻을 거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자녀가 부모의 흉내를 내고, 부모는 자녀에게 영향력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자녀는 부모에게서 가치관을 배운다는 등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원효식 목사는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¹⁵⁾

자녀들은 말보다는 보는 대로 흉내를 낸다. 부모는 말보다 태도와 행동으로 아이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 자녀는 부모의 가치관을 밀로 가르쳐서 배우기 보다는 보고 배운다. 때문에 성경은 속담에 “어미가 어머하면 딸도 그렇다”(겔 16:44)는 말이 있다고 소개한다.

성경은 부모의 영향력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다. “아버지의 죄가 자손에게 삼사대까지 이른다”(출 30:4~6)는 말이 성경에 네 번이나 반복되어있다. 또 “아하시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부모(아합과 이세벨)가 걸은

길을 그대로 따랐더라”(왕상 22:51-53)고 성경은 부모의 악영향을 소개하고 있다.

가정마다 ‘도청기’가 설치되어 있다. 한 아이당 두 개의 고성능 마이크가 있어서 식사기도, 부르는 찬송, 일상시 대화, 지나가는 말, 사용하는 언어, 특수 단어, 다양한 소리 등을 수신한다.

이와 같은 고성능 수신기는 들리는 모든 정보를 아이의 대단히 민감한 마음에 전달해 준다. 그 동안 모아온 소리들은 아이가 사용하는 단어가 되고 행동과 반응의 기초가 된다. 두 개의 ‘도청기’는 아이의 두 귀다. 문제아에 대한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아이들은 주로 흉내를 내는데 부모의 행동규범은 큰 영향을 받드시 준다고 한다.

때문에 어릴 때 부모에게서 받은 영향을 통해서 아이의 윤리개념이 설정된다. 아이들의 양심 상태는 처음 6년 동안에 부모의 생동을 보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처음부터 형성되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아이들을 위한 경고(마 18:6~10, 19:13~14)를 보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리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타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마 18:6),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마 18:10),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마 19:14).

예수님의 경고 속의 의미도 아이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소중히 여기고 용납하고 모범을 보이려는 것이다. 아이들은 부모에게서 가치관을 배운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예수님, 교회, 성경, 신앙생활, 사람, 돈 등에 대해서 현재 어떤 태도가 형성되고 있는가? 결국 부모가 가정에서 이것을 결정하고 있다.

③ 징계

부모는 또한 그들의 자녀를 징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천적으로 최인이기 때문이다(시 58:3). 잠인서는 효과적인 징계의 긍정적인 결과와 부적절한 징계의 부정적 결과를 기록하고 있다(참고 : 잠 29:15, 13:24, 29:17, 22:6). Bushnell도 “가정의 지배에는 형벌과 징계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¹⁶⁾고 그의 저서 □□기독교 양육□□에서 기록하고 있다.

징계는 단순한 훈계 의상을 의미한다, Charles Hodge는 “징계는 어떤 사람에게 그의 잘못이나 의무를 생각나게 하는 행동이다”¹⁷⁾라고 언급했다. 매는 사랑의 매가 되어야 한다. 매가 사랑의 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홍분된 상태에서 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매를 대는 것은 불순종하는 행동 직후가 가장 효과적이며, 왜 때리는지를 반드시 설명해 주어야 한다

징계 후 사랑의 표시를 해주어야 한다. 훈계하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다(히 12:5~6)

손으로 때려서는 안 되며 회초리를 사용해야 한다(잠 13:13, 13:24, 14:3, 22:15, 23:13~14, 26:3)

칭찬은 공개적으로 해주고, 꾸중은 은밀한 곳에서 사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칭찬과 꾸중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해야 한다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이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

부모가 오해를 했거나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솔직히 말해야 한다

부모는 위반(죄)에 대해 슬픔을 전달해야 한다

더욱이 언제부터 징계할 것인지, 또 어떤 때는 징계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아는 것도 징계의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 필요하다. 로이 B. 주크와 제인 A. 게츠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징계해야 한다(잠 13:24)고 했고, 부모가 징계를 피해야 할 세 가지 시기는 식사시간, 잠자리에 들 시간, 중간적인 시간으로 제시했다.¹⁸⁾

4. 십대 자녀양육을 위한 상담적 접근

Paul Tripp은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도록 준비된 신실한 십대 자녀를 키우고자 한다면 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 일이 있다”¹⁹⁾고 제시한다.

1) 계획이 있는 자녀 양육

Paul Tripp은 “시편 36편 1-4절이 계획이 있는 자녀 양육에 대한 놀라운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고 성경적인 모범으로 시편 36편을 설명한다.

“악인의 죄孽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저가 스스로 자궁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 임의 말은 죄악과 궤홀이라 자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피하며 스스로 불신한 일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악인’의 마음속에 있는 두 가지 결핍에 대해 설명한다.²⁰⁾ 첫째로 다윗은 악인들 스스로가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둘째로, 악인들은 ‘스스로 자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결핍은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간직해야

만 한다. 바로 이 덕목은 부모로서 행하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표다.

이 궁극적인 목표로부터 세 가지 목표를 Paul Tripp은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²¹⁾

첫째 목표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십대가 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목표는 십대 자녀들의 삶의 상황들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을 갖도록 돕는 것이며, 그리고 세 번째 목표는 십대 자녀들이 죄를 깨닫고 그것을 미워하도록 도움으로써 그들이 경건함을 추구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우리부모는 목적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며, 우선순위를 가지고 양육을 해나가야 한다.

2) 지속적인 대화

왜 우리 십대 자녀들은 지속적인(혹은 날마다의) 대화를 필요로 할까? 왜 자녀들과 개별적이거나 마음을 털어 놓는 대화가 일어나지 않고서 하루를, 한 주를, 때로는 한 달을 보내는 것이 위험한 일인가? 히브리서 3장 12-13절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에 답해주고 있으며, 자녀들과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과 혹 너희 중에 누군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케 됨을 면하라

히브리서의 이 구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짐을 네 가지 모습으로 나타낸다. 각각의 측면은 이 경고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악심’에 대해 싸워야 할 것을 경고 받는다. 이 마음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거나, 성경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다. 두 번째, 이 말씀은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고 경고한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감사와 신뢰가 사라지는 것을 뜻한다. 세 번째, 이 구절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짐’에 대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이 떨어짐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친교를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네 번째, 떨어진다는 것은 마음이 강박해지는 것이라고도 표현된다.

그것은 양심이 마비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무덤덤해지는 것이다. 그런 마음은 더 이상 양심에 가책이 되거나 죄과 되는 일을 하는데 전혀 거리낌을 갖지 않는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이 이러한 떨어짐에 빠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한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즉 우리는 매일 같이 그들을 격려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은 매일 매일의 집착과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들에게는 날마다의 격려와 매일 매일의 응원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날마다 신앙을 새롭게 되새기는 일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한 것이다. 이 구절이 왜 우리에게 날마다의 사역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그것은 ‘죄의 유혹’ 때문이다.²²⁾ 십대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다가오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부모는 날마다 십대 자녀에게 나아가며, 말을 걸어서 대화하게 하고, 사랑을 표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격려할 수 있는 기회들을 찾아야 한다.

3) 십대들을 회개로 이끌기

부모는 스스로를 자녀에 대해 통제력을 가져야 하는 사람으로 보지 말고 관계를 회복하는 주님의 대사로 보아야 한다. 부모가 바라는 것은 자녀들이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회개와 회복으로 이끄는 네 단계가 있다. 이 단계들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부모가 감당해야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① 1단계 : 심사숙고

부모는 자녀들이 그들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자 할 때에, 구체적인 상황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²³⁾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상황에 대한 설명)

너의 생각과 감정은 어떠한가? (상황에 대한 마음의 반응)

내가 한 일은 무엇인가? (상황에 대한 능동적이며 구체적인 반응)

왜 그 일을 했는가? (구체적인 반응을 하게 된 동기와 목표와 욕구)

그 결과는 무엇인가? (반응을 통해 그 상황에 미친 영향)

② 2단계 : 고백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 사용하고 싶은 충동이 드는 과격하고 또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말은 자녀들을 회개하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그러한 분노는 자녀들이 부모와 하나님에게서 더욱 더 멀어지도록 만든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고 계신다. 부모는 그분의 사역에 협력하는 모습으로 행동할 것인지, 아니면 방해가 되는 모습으로 행동할 것인가? 우리 부모의 목표는 자녀들을 회개의 고백으로 이끌어야 한다.

③ 3단계 : 서약

이 단계는 결코 생략되거나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새로운 방식대로

살며 새로운 방식대로 말하며 새로운 방식대로 모든 문제에 대처하겠다는 십대들의 약속을 포함한다. 이러한 서약은 하나님께 하고, 또한 적절한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 서약은 행동의 변화와 함께 마음의 변화를 포함해야 한다. 부모는 이러한 새로운 서약이 매일 경험하는 특별한 관계와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논의해야 한다. 또한 자녀들이 자신들의 서약을 잊어버리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자녀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④ 4단계 : 변화

진정한 회개는 항상 그들의 삶에서 구체적인 변화로 나타나기 마련이다.²⁴⁾ 다시 한번 여기서 말하지만 부모는 구체적이 되어야 한다. 우리 자녀들이 특별한 상황과 관계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도록 도와야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로운 방법으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도와주어야 한다.

부모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라고 부르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았다는 것을 자녀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주어야 한다. 주님은 분부하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을 열어주실 것이다.

Ⅲ. 닫는 글

성경은 가정을 분명히 훈련학교임을 지적하고 있고, 일반적으로도 청소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이 가정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출산과 양육이다. Strong과

Devault는 “전 세계의 어떤 부모들도 청소년 자녀를 갖는 가족 단계를 가장 싫어한다.”고 하며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커지는 청소년 초기에 이르면 부부 만족은

최저점에 도달한다.”²⁵⁾고 했다. 이러한 보고들을 통해서, 우리는 청소년기의 자녀와 청소년기의 자녀를 둔 부모 모두에게 힘든 시기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고, 부모가 십대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부모는 자신이 자녀에게 제공하는 양육의 종류, 또는 이의 결핍성 여부에 따라서, 자녀의 삶을 보다 풍성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를 망쳐 놓을 수도 있다. 때문에 크리스천 부모는 십대 자녀 양육을 위한 성경적 지침인 말씀을 가르치며, 본을 보이며 가르치며, 그리고 징계를 해야 한다는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크리스천 부모가 십대 자녀에게 성경적 지침을 실천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다고 고충을 토로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Paul Tripp의 ‘십대 양육을 위한 세 가지 전략’인 계획이 있는 자녀 양육, 지속적인 대화, 그리고 십대들을 회개로 이끌기는 십대 자녀를 둔 부모에게 양육을 위한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Bushnell, Horace. *Christian Nature*. 김도일 역. 「기독교적 양육」. 서울: 장로회 신대학교 출판부. 2004.

Daniel, Eleanor, Wade, W. John, Gresham, Charles. *Introduction to Christian Education*. 이은규 역. 「기독교교육학 개론」. 서울: 도서출판 동서남북.

1993.

- Grndendorf, C. Werner(ed.). *Introduction to Biblical Christian Education*. 김국환 역. 「복음주의적 기독교교육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 Tripp, Paul. *Age of Opportunity: A Biblical Guide to Parenting Teens*. 황규명 역. 「위기의 십대, 기회의 십대」. 서울: 디모데. 2002.
- Zuck, B. Roy, Getz, A. Gene(ed.). *Adult Education in the Church*. 신칭기 역. 「교회와 장년교육」.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 김국환. 「기독교교육 사역론」.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93.
- 권이종, 남정길. 「청소년 교육」.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4.
- 장휘숙.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1999.
- 원효식. 「가정사역의 이론과 실제(강의안)」. 안양: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2001.

정동섭. “우리 자녀 어떻게 키워야 하나?”. 크리스찬라이프, 「크리스찬 라이프」 제316권(1995. 5): 25.

후주

- 1) Roy B. Zuck & Gene a. Getz, *Adult Education in the Church*. 신칭기 역, 「교회와 장년교육」(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304.
- 2) Gene a. Getz, *The Measuer of Family* (Glendale: Gospel Light, 1976), 36.
- 3) Werner C. Graendorf, *Introduction to Biblical Christian Education*, 김국환 역, 「복음주의적 기독교교육론」(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284-5.
- 4) Roy B. Zuck & Gene, 304.
- 5) 권이종, 남정길, 「청소년교육」(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4), 38.
- 6) 김국환, 「기독교 교육 사역론」(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93), 288.
- 7) 김국환, 289.
- 8) Eleanor Daniel, John W. Wade, Charles Gresham, *Introduction to Christian Education*. 이은규 역, 「기독교 교육학 개론」(서울: 동서남북, 1993), 222.

- 9) Roy B. Zuck & Gene a. Getz, 325.
- 10) Roy B. Zuck & Gene a. Getz, 312-3.
- 11) Roy B. Zuck & Gene a. Getz, 314.
- 12) Eleanor Daniel, John W. Wade, Charles Gresham, 44-46.
- 13) Horace Bushnell, *Christian Nature*, 김도일 역, 「기독교적 양육」(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4), 35.
- 14) Eleanor Daniel, John W. Wade, Charles Gresham, 223-225.
- 15) 원효식, 가정사역의 이론과 실제(강의안), 180-81.
- 16) Bushnell, 322.
- 17) 정동섭, “우리 자녀 어떻게 키워야 하니?” 크리스찬 라이프사, 「크리스찬 라이프」 제 316권(1995, 5): 25.
- 18) Roy B. Zuck & Gene a. Getz, 374-5.
- 19) Paul Tripp, *Age of Opportunity: A Biblical Guide to Parenting Teens*, 황규명 역, 「위기의 십대, 기회의 십대」(서울: 디모데, 2002), 297.
- 20) Paul Tripp, 300-1.
- 21) Paul Tripp, 307.
- 22) Paul Tripp, 310-11.
- 23) Paul Tripp, 317-18.
- 24) Paul Tripp, 319-20.
- 25) 장휘숙, 「청년심리학」(서울 : 학지사, 1999), 272.

Abstract

Understanding of Christian Families and Parenting Children

– Centering on the Parenting of Teenage Children –

Eun-Kyoo Lee

(D.R.E., Anyang University)

This paper begins with the premise that it is not an easy task for parents to raise children. With this issue in mind, this essay proposes an effective and specific approach that will hopefully lessen the burden of Christian parents raising teenagers.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biblical family and role of the family in the bible and points out that the family is the decisive factor when it comes to transforming teenagers into people of God. It also reveals that the most important role of the family is childbearing and parenting. Second, by examining the family and Christian parenting this paper defines the biblical concept of parenting and a biblical guide to family parenting. Finally, this paper introduces Paul Tripp's "Three Strategies for Parenting Teens" and proposes a counseling approach to teenage parenting.

Key Words: Christian Family, Role(Fuction) of the Family, Biblical Parenting, Continuous Communication, Repentance.